

分斷時代의 文學史 敘述

黃 湨 江

(檀國大)

- I. 서 언
- II. 분단기 문학사와 그 양상
- III. 분단극복을 위한 문학사 기술의 당위

I. 서 언

우리 나라는 1945년의 광복을 기점으로 하여 우리의 의사나 선택과는 관계없이 국토 분단의 시대에 들어섰다. 그 이전의 시대는 비록 일제 식민지의 암흑기이기도 하였으나, 단일 민족으로서의 동질성과 결속을 일제의 간섭에도 불구하고 결코 상실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광복을 계기로 한 국토 분단은 당초 이 땅에 진주한 미·소 양국의 군정상의 잠정적 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고착화되어 감에 따라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민족 동질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분단 양상을 드러내게 되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 민족에 있어서는 단순한 거주지역의 타율적 차단에 불과해야 했던 저들의 <국토 분단>이 급기야는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서로 대극적인 분단양상을 가증시켜 오늘날에는 돌이키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것은 민족사적으로 큰 불행이 아닐 수 없다. 북에 진주한 소련군대는 들어오는 날로부터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종국적 목표로 모든 시책을 펴 나갔고, 남쪽에 진주한 미국 군대는 미국식 자유 민주주의 국가 건설을 이상으로 삼고 시책을 펴 나갔다. 그러나, 지난 40년간의 분단사를 냉정히 돌아다 볼 때 양쪽 모두 저들의 정치제도를 이 땅에 토착화시키는데 그다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기에는 매우 회의적이 아닐 수 없다. 한 마디로, 양쪽 모두 실패했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 실패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역사적 전통을 무시하고, 전혀 새롭게 외부로부터 임의의 제도나 사상체계를 일방적으로 이식하려 했다는 점에서 찾아진다. 그 어떠한 제도나 사상체제도 우리의 주체적 조건에 적응되지 않는 한 그것의 이식이나 동화 노력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그 결과로 나타난 단적인 사실을 들어 본다면, 사회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북에서 이미 절대화되고 있는 진군대적 개인숭배와 권력의 세습화 징후는 사회주의 이념으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배

이념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시피 되고 있다. 사실 이와같은 요소들은 사회주의와는 관계없는 전통적 혹은 인습적 요소임이 분명하다. 한편 남에서는 국민 일반은 물론 역대 지도자들이 민주주의 정신에 투철하지 못했던 결과로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쉽사리 독재와 타락에 빠짐으로써 민주주의에 역행하였다. 구호로서가 아닌, 민주주의의 토착화는 아직도 과제로 남아 있는 형편이다.

정치체제상의 분단 현상은 단순한 정치, 제도 차원의 분단에 그치지 아니하고 사회 전반—산업, 경제, 교육, 예술, 문화, 학술…… 등 모든 분야에 두루 파급되어 어느덧 바람직스럽지 못한 분단 현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나타났던 것이다. 정치적으로 가장 순수해야 할 학술분야에서도 분단의 상황은 심각하였으니, 서로의 학술 정보 교류조차 공식적으로 철저히 차단되어 있었다. 그러니 그 이상은 더 말해서 무엇 하겠는가!

분단 40년을 보내는 이 시점에서 학술의 모든 분야에서 남과 북의 좌표를 검토하고, 동질성 회복을 위한 과제를 제기하는 일은 절실히 필요하고도 중요한 민족적 과제라고 생각된다. 본고는 분단 시대에 있어서 남과 북이 제각기 이루어 놓은 문학사를 대상으로 하여 이를 검토, 문학사 서술을 지배하고 있는, 다분히 파행적인 분단의 논리를 밝혀 내어, 이를 극복, 지양할 데 대한 관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의 분단 상황이 문학사 서술에 끼친 가장 기본적인 제약 요인은 남과 북의, 문학을 이해하는 시점의 대극적 현상을 들지 않을 수 없다. 북의 문학사는 철저히 사회 경제 기반 위에 성립된 한낱 상층구조로서 문학을 이해하는 유물변증법적 논리를 거듭 확인케 하고 있다. 모든 시대의 문학은 이 논리로 재단되고 평가되고 서열화되고 있다. 문학을 <상상>보다는 <로동>의 산물로서 이해하며, 이로써 작품과 작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거기에 비하면 남의 문학사는 문학을 이해하는 시점이 서술자마다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북과 같은 목적론적인 논리의 일관성은 없거나 박약한 편이다. 남의 문학사의 일반적인 경향은 문학을 시대적 사회적 산물로도, 또 상상의 산물로도 비교적 융통성있게 이해하는 입장에 있다. 그러나, 시대적 사회적 산물로 보는 경우도 북의 문학사와 같이 반드시 유물 변증법적 논리를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남에서 유물 변증법적 사관에 입각한 문학사가 나오지 않는 것은 아마도 그 동안의 분단 상황이 가져온 정치적 여건 때문일 것이다. 이 점은 북에서 유물 변증법적 사관 이외의 그 어떠한 사관도 용납되지 아니하였던 엄혹한 현실과 대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문학사 서술에서의 사관의 양극화 현상은 문학상의 결정적인 분단 상황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 문학사 서술의 기본적인 제약 요인으로서 자료에 대한 상호 제약을 들 수 있다. 특정한 작가, 특정한 작품에 대한 서술 금지 내지 금기라는 제약적 조건은 문학사의 체계적 서술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것 또한 분단 상황이 가져온 가장 큰 제약 요건의 하나라 하겠다.

다음으로 문제 되는 것은 광복후 분단 상황에서 이루어진 문학에 대한 역사적 서술의 통합적 객관적 서술에 관한 문제다. 우리 나라의 분단 상황은 서로의 문학 활동에 대한 광범하고도 심도 있는 정보의 교류를 어렵게 하고 있고, 따라서 이에 대한 객관적 역사 서술은 아직도 미래의 과제로 남겨져 있는 형편이다. 남과 북이 각각 해방 이후의 문학사를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통합적인 안목에서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상, 분단 상황에서의 문학사 서술의 기본적 제약 요인 몇 가지를 들었으나,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 밖에도 더 있을 것이다. 본고는 위와 같은 제약적 조건을 구체적으로 검증하는 가운데서 문제의 주변을 더 파헤쳐 그 실상을 보다 실증적으로 밝혀내어 문학사 서술에서의 분단 상황 극복의 가능성을 제기하려 한다.

II. 분단기 문학사와 그 양상

분단이라는 한계상황이 문학사를 기술하는데 있어서 그 나름의 제약을 불가피하게 했던 것은 다른 분야에서도 다르지 않다고 하겠으나, 그 제약이 지엽적인 차원에 머물지 아니하고, 문학사 기술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데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한 시대가 지날 때마다 과거의 문학은 재검토되고 작품과 작가들은 재서열화될 필요가 있다. 역사 기술의 <장>인 현재는 부단히 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사는 <현재>의 시점에서 거듭 다시 씌여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분단기 40년을 보내고 있는 우리 현실은 전혀 이질적인 <현재>를 남과 북이 역사 기술의 <장>으로서 가지고 있다. 우리의 분단상황은 공간적 분단을 넘어 <시간>의 분단까지를 아우르고 있어 <시간> 인식상의 격절, 이것이 역사 기술의 결정적 한계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다.

분단기 이전-일제하에 있어서(이 때라고 혜택받은 시대는 아니다) 우리 문학사의 체계화 노력은 일제의 간섭과 우리 자체의 학문적 미숙성 때문에도 그 수준이 극히 미미한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1922년 안자산이 엮은 《조선문학사》가 아마도 분단기 이전에 나온, 최초이면서 유일한 우리 문학사가 아니었던가 한다. 이것은 저자 자신 “余의 微力으로 文學史를 建設하기는 大端 困難한 일이라 할지라. ……(중략)…… 讀史의 餘暇를 得하여 系統的 大綱을 抄한 것”(p.3)이라 밝힌 데서 알 수 있듯이 소략한 입문서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그나마도 일제의 검열로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상당한 길이의 공백 부분이 두 군데나 있다. 결국 본격적인 문학사는 광복후 곧 분단기에 들어가서야 남과 북에서 각각 체계화하였다. 이제 분단기 남과 북의 문학사를 나누어 그 실상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북의 문학사를 다루기로 한다.

1) 북의 문학사

북에서 발간된 문학사는 아래와 같은 세 종류가 있다. 이것 이외에도 더 있음직하나, 필자로서는 더 이상 확인할 수가 없었다.

* <스 1> 조선문학통사 상, 1959. 5.20,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집체집필)

<스 2> 조선문학통사 하, 1959.11.30,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집체집필)

* <스 3> 조선문학사, 단권, 1964. 1, (번인 출판, 원제 : 문학, 1960.11.15), 교육도서 출판사(편자 불명)

* <스 4> 조선문학사(원시사회 - 19세기 중엽), 1977.12.28,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집체집필)

<스 5> 조선문학사(19세기 말 - 1945)

<스 6> 조선문학사(김일성 항일투쟁시기 문학)

<스 7> 조선문학사(1945 - 1958), 1978.10.30.

<스 8> 조선문학사(1959 - 1975), 1977.12.20.

위에서 <스 2>, <스 5>, <스 6>의 3권은 필자가 열람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여 본고에서 다루지 못하였다.

①<스 1> : 본서는 <머리말>에서 “우리 문예 학자 집단은 이 간절한 현실적 과업(필자 : 근로자들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교양하는)에 이바지하고자 오늘 우리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의 찬란한 개화 발전을 이루기까지에 우리 문학이 인민과 함께 걸어 온 영광스러운 역사를 맑스-레닌주의적 방법으로 간명하게 서술하여”라고 한 데서 알 수 있듯이 공산주의 사상 교양을 전제로 하여 해당 부문의 연구자들이 망라된 문예 학자 집단의 집체집필로 이루어진 문학사이다. 문학사 기술에서 이념 교양을 궁극적 목적으로 삼은 당연한 결과로서 모든 체계화와 서술에 있어서 이와같은 목적론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문학사의 시대구분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1 장 : 7세기 전반까지의 문학

2 장 : 7세기 후반기 - 9세기 문학

3 장 : 10세기 - 13세기 문학

4 장 : 14세기 문학

5 장 : 15세기 문학

6 장 : 16세기 문학

7 장 : 17세기 문학

8 장 : 18세기 문학

9 장 : 19세기 문학

위와 같이 세기 단위로 시대를 구분하였고, 각 단위 시대마다 그 시대의 문학 형성의 기반이 되었다고 보는 사회, 경제, 정치적 상황을 앞에 서술하고, 문학의 사실은 〈산문〉과 〈시가〉로 크게 나누어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14세기에서 ‘고려시대의 일련의 인민 가요들에 대하여’, ‘15세기와 19세기에서 국문학’을 따로 항목 설정하여 기술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시대 구분을 세기 단위로 설정하고, 개념화한 용어로 각 시대를 지칭하지 않음으로써 형식상 객관화 되어 있다.

그러나, 본서는 〈머리말〉에서 밝혔듯이 그 서술에 있어서, ‘력사주의 원칙에 립각하여’ ‘진보적 문학에 관류하고 있는’, ‘애국주의’, ‘인민성’, ‘인도주의’의 전통을 밝히며, 해방후 ‘로동당의 문예정책에 의하여 개화 발전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의 성과와 그 특성을 천명하려는 지향으로 일관’ (필자 축약)하고 있음으로써 역사기술의 목적성을 분명하게 하였다. 위에서 말하고 있는 목적론적인 원칙은 구체적인 역사서술에서 드러나고 있다. 본서는 20세기 문학을 하권에 미루고 있는 관계상 해방후의 ‘로동당의 문예정책’과 관련된 ‘성과’는 다루어질 수 없으나, 그것과의 역사적 연계를 전제한 듯 그 이전 시대의 ‘사실주의 문학’에 관한 서술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력사주의 원칙’에 입각한 본서의 서술을 10~13세기 문학에서 예를 취하여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고려의 건국은 우리 나라 역사에서 한 생산 양식으로부터 다른 생산양식으로의 질적 발전의 이행이 아니라, 전제적이며 중앙 집권적인 봉건 제도로로의 이행에 불과하였다. 정권을 장악한 고려 지배층은 …… 일련의 정치, 경제, 문화 각 영역에 걸쳐서 일련의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은 물론 당시 사회의 계급적 모순을 해결하지는 못하였으나 사회의 불안을 완화하고 9세기 말 이래 마비 상태에 빠지었던 사회 생산력 발전에 크게 작용하였다.”

위의 ‘력사서술’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역사 발전의 원동력을 생산력에 있다고 보고, 그와 관련된 생산관계에서 계급적 모순이 제기되며, 계급간의 투쟁을 통해 모순을 해결하고 새로운 생산 양식으로 옮겨 감으로써 역사는 발전하는바 사회주의적 생산양식으로의 이행을 궁극적인 역사적 필연성으로 보는 ‘유물 사관’의 논리를 깔고 있다. 이와같은 서술은 하필 10~13세기 문학 부분에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본서의 전반적 서술에 있어서 한결같이 그와같은 ‘력사주의’가 지배하고 있다(이하에 고찰하는 북의 문학사는 이와같은 ‘력사주의’에서 한결같이 일치하고 있다). 위에서는 다만 그 일례를 들었을 따름이다.

유물 변증법적 사관의 당연한 결과로서 문학사 서술에 있어서 생산 관계를 중심한 사회적 제반 조건이 문학의 사실을 결정하는 주요한 사실로서 설명되고, 이로 말미암아 문학의 모든 사실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평가하는 기술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을 본다. 따라서 시대마다의 문학사 기술에 있어서 그 당대의 사회적 제 조건은 그 시대 문학의 성격을 결정짓는 지배적 요인으

로서 언제나 논의의 전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그 사회적 제 조건이란 언제나 생산 관계를 둘러싼 모순에서 도출되고 있다는 데서 이른바 ‘사회성’의 경향성을 지적할 수 있다. 생산관계의 모순에서 도출된 사회적 문제로서 으레히 계급간의 갈등과 대립을 말하는데, 이 대립은 투쟁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문학은 모든 시대에 있어서 이와같은 계급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나타나는 여러 현상을 충실하게 반영함으로써 투쟁이라는 해결방식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태도가 북의 문학사 기술의 기초가 되고 있다.

7세기 전반까지의 문학을 논하면서 “…… 종족 집단 내의 계급적 모순이 첨예화되어 국가의 형성을 보게 되는 이러한 사회 형성의 사회-력사적 조건은 필연적으로 자기 계급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계급적 이데올로그들의 출현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그것은 문학 분야, 시가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의 현상을 낳았다.”(p.18)라고 하고, “시가는 자기 계급의 이해 관계를 반영하는 사상적 무기로서 되는 동시에 또한 자기를 인식하는 개성의 감정과 기분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되었다.”(p.19)고 하여 문학을 개성의 감정과 기분을 표현하는 수단으로도 보나, 근본적으로 계급간의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나타난 사상적 무기로 인식하고 있다.

신라 향가 <우적가>에 대하여 “영재는 노래에서 도적을 ‘외혼(옳지 않은) 파계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고, “농민 봉기군을 불교도의 립장에서 극악한 이단자로 보고 그들이 지배 계급을 반대해서 싸우는 것은 ‘물욕’ 때문이며 그들의 투쟁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사회 생활에 대한 허무주의적 사상을 선전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p.49)라고 하고, “<우적가>의 기본 빠포스는 조신의 설화나 <원가>, <제망매가> 이상으로 인민의 참된 지향에 위배된다.”(p.50)고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조신이나 선릉에 관한 불교설화에 대하여도 “이 설화들은 설화 조작자들의 의도와는 관계 없이 도리어 그 속에 불교의 반인민성, 반인간적 본질, 인민들의 간고한 생활 형편들을 신랄하게 반영함으로써 그 정체를 폭로하는 것으로 되었다. 여기에 이 설화의 가치가 있다.”(p.133)고 설화 본연의 의미와는 관계 없이 전혀 다른 측면에서 그 의의를 말하였다. 불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비판, 거부하는 논조로 일관되어 있다.

“불교의 보급과 장려는 인민 생활에 나쁘게 작용하였다. 불교의 독소는 인민 대중의 계급의식의 발전을 저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족과 굴종의 사상을 조장함으로써 기아와 빈궁으로부터의 출로를 투쟁에서가 아니라 ‘래세’의 행복을 위한 기도와 축원에서 찾을 것을 강요하였다.”(p.73)고 하고, “행복에 대한 환상으로 자위케 하는 정신적 아편”(id.)이라고 하였다. 종교에 대한 이와같은 부정적 태도는 불교에 국한한 것은 아니다. 19세기에 들어온 천주교에 대하여도 “조선에서의 천주교는 위선적인 ‘평등과 박애’의 간판 밑에 조선에 대한 구미 자본주의의 침략적 전초병으로 들어 왔던 것”(p.341f.)으로 단정하였다.

사회현실을 반영하는 문학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고는 하나, 북의 문학사가 말하는 사회현실은 일반적인 의미의 사회 현실이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계급간의 대립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회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지배층의 착취상, 피지배층(흔히 ‘인민’이라고 부르고 있다)의 빈궁, 지배층에 대한 반항…… 등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문학을 문학사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서열화하고 평가 하고 있다. 이와같은 문학의 수법을 사실주의로 부르고, 그현실을 단순히 반영할 뿐만 아니라 작자 자신 비판의 의도가 인정될 때 이것을 비판적 사실주의라 하고, 그와같은 작품을 쓴 작가를 진보적인 작가로 평가한다. 그가 비록 양반출신이라 하더라도 진보적인 점은 평가한다. 그러나, 그와같은 진보적 문인의 경우도 그가 갖는 계급적 제약이 불가피하다는 논조를 대개의 경우 펴고 있다.

신라의 문학은 3국 시대의 문학 전통을 계승하여 이를 발전시켜 새로이 문학 장르를 분화시켰고, 우리 문학의 사실주의적 전통을 세우기 시작하였다고 하였다. 최치원은 당대의 부패 타락한 지배층들의 생활을 비판 폭로함으로써 우리 나라 시문학의 사실주의적 전통을 세우는 데 있어 첫 기여를 하였다고 하였다.(cf.p.34f.) 14세기 고려의 시문학에서 이곡의 <상률가>, <촌가부로> 등 시를 “사실주의 전통에서 하나의 두드러진 도표로 된다.”(p.146)고 평가하고 있는데, <상률가>는 ‘고려 말엽의 고난에 찬 인민 생활을 가장 진실하게 반영한 가장 탁월한 작품의 하나’로, <촌가부로>에 대하여는 “착취자들의 갖은 죄악을 폭로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분노로 불타는 시인의 주정 토로로써 독자들을 격분의 폭풍 속으로 일으켜 세운다.”(id.)라고 평하고 있다. 15세기의 김시습의 시 <어부>, <기농부어>, <영사가고> 기타를 들어 ‘인민 생활에 대한 동정과 지주 관료들의 착취에 대한 증오’(p.196)를 잘 그려냈다고 하고, 그를 ‘우리 문학의 사실주의적 발전을 촉진시킨 점에서 특기되어야 할 것’(p.196)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비판적 사실주의 차원의 평가를 하고 있을 뿐이다. 18세기 박지원의 산문에 대하여 “박지원은 현실에 대한 예술의 관계에 관한 문제에 명확히 유물론적 해답을 주었으며, 아름다운 것에 대한 인민적 견해를 천명하였으며, 전통과 혁신의 변증법적 관계를 옳게 밝히었다.…… 그것은 낡은 봉건 제도를 파괴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는 이 시기의 현실적 요구를 직접적으로 반영한 것”(p.304)이라고 하고, 그를 ‘위대한 사실주의 작가로서 불멸의 이름을 남긴 분’(p.324.)으로, “뛰어난 사실주의적 작품들로써 비판적 사실주의 확립에 있어서 큰 공로자로 되었다.”(id.)고 극찬하고, “연암은 문학을 자기 사상을 선전하는 수단으로서, 자기의 적대 사상을 폭로 비판하는 무기로서 옳게 인식하고 목적 의식적으로 창작의 붓을 들었다.”(p.325)고 하였다.

비판적 사실주의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이와같은 경향을 가진 진보적 문인이 갖는 제한성을 말한다. 즉, 이제현의 시가가 갖는 사실주의를 평가하면서 “탁월한 솜씨로 당해 력사적 현실을 반영하면서 인민들의 행복을 념원하고 그들의 고통을 동정하고 있으나 아직 근로 인민과 통치

배들 사이의 계급적인 모순을 전면적으로 드러내여 놓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농민들의 해방의 길을 밝히지 못하고 오히려 위정자들의 ‘인정’, ‘선정’에서 찾고 있다. 이는 작가의 사회 정치적 견해와 모순되지 않는바, 작가 자신의 계급적 제한성, 당시의 역사적 환경의 제약성으로 설명된다.”(p.156)고 하고 있다. 이와같은 사실주의에 대한 태도는 이른바 착취, 빈궁을 폭로하는 것으로 만족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것의 해결책으로서 반항과 폭동을 긍정하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최치원의 사실주의를 평가하면서도 그가 쓴 <토왕소격문>에 대하여 “이것은 물론 그의 문학 활동의 부정면이다. 그러나 우리 문학이 시작된 뒤 시인들이 인민봉기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이르기까지는 여러 세기가 걸렸다. 9세기의 젊은 시인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불가피한 사정”(p.57)으로 이해하는 태도를 나타냈다. 이 문맥에는 황소의 난을 인민봉기로 긍정하는 시각이 깔려 있다. 도적에 대하여, “력대 통치 계급들은 또한 자기들을 반대하며 적대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통털어 ‘도적’이니 ‘적당’이니 하는 이름으로 불렀으니 거기에는 봉건 통치를 반대하여 일어난 봉기군도 포함되었다는 것은 …… 명백하다. … 과거 문헌 가운데 나오는 ‘도적’이란 개념은 어의 그대로 직역하는 것은 금물이 아닐 수 없다.”(p.270)고 하였다.

그러나 하층민의 폭동이나 난동에 대하여는 그 성격을 가리지 아니하고, 몰아서 그것을 잘못된 제도와 악독한 지배자에 대한 반항으로 간주해 버리는 편집증적 태도를 띠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실 해석에서 나타난 이런 종류의 편향성은 문학의 해석에 중대한 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 14세기의 악부 가요 <제위보>에 대하여 “빨래하는 젊은 여자를 룡락하려는 귀족 출신의 젊은 바람쟁이와 이에 항거하는 젊은 여자의 대립되는 두 세계가 비상한 형상화의 솜씨로써 묘사되고 있다.”(p.152)라고 단정적인 논의를 폈으나, 과연 그 여자가 항거하고 있는지는 분명히 말할 수가 없다. 18세기의 국문소설 <장화홍련전>의 비극을 “양반 가정에서 벌어지는 …… 봉건적 소유 제도에 연유”(p.307)한 것으로, 결코 “그들(허씨와 장씨 - 필자주)의 성격상 결함인 것이 아니라, 이 시기 가족 제도의 불합리성에서 오는 불가피한 비극적 운명”(p.308)으로 해석하고 있다. 장화의 비극을 당대의 가족 제도나 소유제도의 결함으로 몰아 버리고, 악독한 계모의 문제는 도외하고 맑으로써 반주제적인 해석밖에 할 수 없었다고 하겠다.

<사씨남정기>의 경우도 교녀를 ‘봉건적 량반 가정의 직접적인 산물’(p.276)로, 곧 인간성을 외곡하는 봉건사회에 그 책임을 미루고 있다. 이런 논법으로 나가면 개인은 다만 환경의 산물일 뿐 그 자신 아무런 주체적 책임이 있을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

목적론적인 사관이 얼마나 사실 이해를 어렵게 하는가를 말해 준다. 이와같은 작품 해석의 예는 이루다 들어 말할 수가 없다. 동물 우화 <토끼전>에 대한 해석에서 다시 한 번 그와 같은 목적론적 해석의 오류를 볼 수 있다. “이 설화는 전승 과정에 일정하게 시대적 윤색이

가해졌는바, 각 계급들에 의하여 자기들의 계급적 이해 관계에 유리하게 해석하였다. 량반 지배 계급은 이를 자라의 충의를 찬양하는 것으로서 해설하였으나, 인민들은 이와는 달리 리해하였으며, 실상 작품의 객관적 사상은 그것이 아니다. 인민 대중은 1년 사철 기를 펴지 못하고 살아 가는 토끼의 간고한 생활에 동정하였으며, 자라와 통왕의 간책을 보기 좋게 물리치고 생명을 건지는 토끼의 지혜와 수완을 찬양하였다.”(p.309)고 하였으나, 이 작품은 계급적 이해관계와는 상관없이 자라의 충직함과 토끼의 기지를 동시에 감명 깊게 받아 들이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굳이 계급적 이해에 매여 작품 수신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논법은 문학의 메커니즘을 너무 도식적으로 단순화하여 생각하는 것밖에 안된다. 계급성이 문학을 제작하고 또 이해하는데 관여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계급사관에도 불구하고, 애국과 충의에 대한 평가를 볼 수 있다. <취유부벽정기>에서 홍생의 시를 분석하여 유학자들의 사대주의적 견해와 엄격히 구별되는 애국적인 주체적 입장을 읽었고(cf. p.199), 김종서, 남이 등의 시가들을 ‘우리 문학의 애국적 전통을 쌓아 올리는 데 크게 기여’한 작품으로 평가하고 있다.(cf.p.189) 사육신과 생육신의 시가에 관하여도 ‘절조, 강이성, 의분심 등이 인민들의 정의감을 환기시키고 공감을 주었’(id.)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념원하는’(p.164) 작가의 의식을 ‘인도주의’로 지칭하고 이를 문학의 기본 빠포스로서 논하고 있다.(cf. id.) 고려의 목책정사를 비판한 이제현의 산문에서 그와같은 인도주의를 평가하고 있다.(cf. id.) 이곡의 <상률가>, 신라의 <설씨녀전> 등에서 고매한 인도주의를 말하고 있다.(cf.p.144.94)

이상은 문학사 기술과 관련하여 사관에 연관된 문제를 개략적으로 살펴 본 것이다. 다음으로 문학사 기술에서 나타난 문학적 문제들을 살펴 보기로 하겠다.

문학의 발생과 발전의 전 과정을 연결관계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시조 발생에 대한 기술에서 볼 수 있다.

“그 형식이 완성된 것으로 추측되는 시조의 형성 과정에는 두 개의 요인이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하나는 전형적 향가 형식의 3장적 구성과 그 락구 초두에 필수적인 감탄사의 계승이다. 다른 하나는 고려 시대의 일련의 인민 가요들에 매개 절이 독립할 수 있는 가능성의 포착이다.”(p.157) 그리고 송강의 시가를 논하는 자리에서 그것이 신라 향가나 고려 가요 등 선행한 서정시들의 우수한 전통에 의거하고 있음을 말하고, 또 황진이 기타의 작품이 16세기 싹트기 시작한 시민 계층의 시가 세계와 연결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cp.p. 226) 시가 문학에 대한 계승관계 논의는 비교적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산문 문학의 발생론에서는 ‘력사적 기술의 문학적인 묘사에로의 지향’이 고대 산문 문학

발생의 ‘밑천’이 되었다고 하고, 고대 연대기 작품들이 서사문학사의 맨 첫 산문 문학 작품임을 단정하고 있는 것(cf.p.11)도 특색 있다. 고대 연대기 작품으로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들은 전기 문학의 기초가 되었다고 하였다.(id.)

새로운 견해로 인정되는 것도 보인다.

(ㄱ) 7세기 후반기-9세기(통일 신라 시기)는 우리 민족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의 준민족의 형성 시기라고 하였다.(p.31) ‘준민족’이라는 개념은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ㄴ) 향가의 응결된 시 형식은 전편 3장이며, 제 1, 2장은 각각 4 시행, 제 3장은 2 시행으로 되어 있고, 제 3장은 <낙구>, <격구> 기타로 부르며, 제 3장 머리에 <아야> 기타의 감탄사-합창부가 오고, 제 1, 2장은 합창 사이에 들어가는 투입구라고 하였다. 이로써 후대 가요와의 모종의 연계를 시사하고 있다.(cf.p.37f.)

(ㄷ) 향가 <안민가>의 ‘窟理叱大勝生以支所音物生’의 해독을 ‘구릿 대홀 나히 고이숨 갓나히(윤희의 차축을 꾀고 있는 갓난이)’로 하고 있다.(cf.p.47f.)

(ㄹ) <서옥설>을 임제의 작품으로 밝히고 있으나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cf.p.232)

(ㅁ) <홍길동전>이 <운영전>과 같이 한문으로 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차 국문으로 번역되어 유행하였다고 하였다.(cf.p.261) 과연 기술자는 <홍길동전>의 한문본의 실존을 확인하고 쓴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남에서는 최근에 한문본 <홍길동전>이 학계에 소개된 바 있다.

(ㅂ) 처용을 화랑 제도의 붕괴기의 한 화랑으로 보고, 후세의 <광대>를 지칭하던 화랑에 근사한 개념으로 보고 있다.(cf.p.51)

(ㅅ) <운달전>, <도미전>, <설씨녀전>등을 소설적 구성의 전기 작품으로 인정하고, 소설 문학 발생을 준비함에 있어서 주요한 전통을 이루며, 일보 전진을 보여 주는 작품들로 평가하였다.(cf.p.93)

(ㅇ) 한시만을 대종으로 삼아 온 사대부들이 16세기에 들어와 노래 부를 필요성 때문에 국문시가를 짓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에까지 도달한 것을 큰 진전으로 인정하고 있다.(cf.p.211)

(ㅈ) 김구, 이현보, 송순 등의 은일 시가에 대하여 이들의 정치와의 관계에 따른 시가 태도를 살펴 어디까지나 현실을 초탈한 것이 아님을 실증하고 있다.

다음으로 본서의 문학사 기술상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여 둔다.

(ㄱ) 이미 앞에서도 누차 지적된 사실이나, 논리 전개에 소박성이 사실 이해를 어렵게 하고 있는 점이다. 일례로 <해론가>의 ‘장가’라는 기록을 두고 ‘인민 창작적 영웅 서사시’라고 어렵지 않게 단정하고 있는 유이다.(cf.p.54)

(ㄴ) 한시를 인용하면서 번역시만 싣고 원시를 싣지 않은 경우가 있다.(이것은 ㅈ 4, 5에서 철저히 하여 하나의 예외가 없다. 인용 한시의 원제를 밝히지 않고 번역한 제명만 내놓았다)

본서 가운데서 발견한 오류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ㄷ) 〈물계자가〉의 유래를 설명하는 가운데 “...울분한 심사를 병든 대나무에 의탁하여...” 라고 한 것(p.22)은 마땅히 “대나무와 같이 곧은 성품을 애달파 하여”로 해석해야 옳다.

(ㄹ) 신라 진덕여왕의 〈태평송〉에 대하여 “외교적 목적을 위하여 씌어진 것인데 그 속에는 당의 위력한 국가 발전이 찬양되는 한편 친선적 정의가 표시되어 있고 또한 당시 삼국 통일을 지향하던 진취적인 신라 국가 통치자들의 힘찬 기상이 표시되어 있다.”(p.29f.)고 하였는데, 이 글의 사대주의적인 비굴한 면은 지적치 아니하고 오히려 이를 지나치게 합리화하고 있다.

(ㄷ) 〈모죽지랑가〉의 설화를 소개한 가운데 “익선은 벌써 도망하고 없었으므로 그 장자를 다리고 왔다. 때마침 동지달 몹시 추운 날씨가 성안 못 가운데서 목욕을 시키다가는 얼어 죽을 것이 뻔하였다. 임금이 듣고 그 대신 명령을 내려 벼슬 자리에서 모랑리 사람들을 모주리 내어 몰고 다시는 관청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p.40)라고 한 것은 원전 해석을 잘못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 익선의 장자는 추운 날의 목욕 때문에 얼어 죽었다고 되어있다.

(ㄷ) 〈양산가〉의 설화를 말하는 가운데 ‘영양산’이라는 지명이 보이는데(p.54), 이것은 “양산에 군영을 차렸다”는 것을 잘못 읽은 것이다.

(ㄷ) 송순의 〈면앙정가〉의 국문 가사가 전하지 않는다고 했으나(p.216), 근년에 가사가 발견되었다.

(ㄷ) 악부 가사 〈수정사〉를 설명하는 가운데 “범람하는 서울 앞 개울의 진흙탕...”(p.153)이라고 하였는데, 수정사는 서울에 있지 아니하고, 제주도에도 있다.

(ㄷ) 임제의 〈수성지〉 제작과 관련하여 “그가 말을 타고 임금의 행차 앞을 지나갔다 하여 탄핵을 받고...”(p.236)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임금의 행차’가 아니라 ‘어사의 행차’여야 할 것이다.

(ㄷ) 〈한양가〉에서 “남북촌 한량들이 각색노름 장할시고...방방곡곡 노리칠다”를 인용하고, 이를 두고 “당시의 사회상을 비판하는 립장에 서 있음을 보여 주었다”(p.347)고 하였으나, 이것은 하나도 비판의 의도가 드러나지 않는 대목이다.

(ㄷ) 고려 유신의 시조를 두고 “외적 강점의 쓰라린 체험을 맞본 인민들에게 그대로 애송되어 왔다”(p.187)고 하였으나, 그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 의문이다. 과연 당시의 인민들이 상층 사대부의 시가를 애송할 수 있을 만큼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할 수 있을까?

(ㄷ) 〈한림별곡〉을 말하면서 “한문 소양이 없는 하층 사회에서는 당초부터 이와 같은 한림 별곡체에 손 댈 수 없었던 조건...”(p.222)을 지적하고, 황진이의 한시를 말하는 자리에서는 “사랑을 노래하고 아름다운 향토를 노래한 시인으로서 인민들의 사랑을 받았으며 그의 시가적 경향은 앞으로 일반 서민 시가에 보편화 되어 갔다”(p.219)고 하였다. 앞의 하층 사회와 뒤의 인민들이나 일반 서민은 다른 계층인지, 한문 소양이 없는 계층으로서는 동질이라고 볼 수는 없는가?

(㉞) <죽창야사>를 지은 이를 ‘리덕동(李德洞)’(p.217)으로 쓴 것은 ‘리덕형’으로, <사재무언(思齋撫言)>(p.228)은 ‘사재척언’으로, 윤국형의 <문운만록(聞韻漫錄)>은 ‘문소만록(聞韶漫錄)>으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본서는 한글 전용으로 되어 있고, 한자어는 더러 ()안에 한자를 표시하였다. 문학사 기술에서 남에서는 생소한 용어와 조어들이 가끔 보이는데 그 대표적인 것을 아래에 소개한다. 이것은 다른 문학사에서도 마찬가지다.

(㉟) 외래 용어 : 빠포스(44, 105, 197, 261, 277), 모찌브(46, 227, 276, 313, 314), 슈제트(101, 276, 314), 스텔(105, 107, 363), 찌쁘(359), 드라마뚜르기야(143), 쩌마(227, 311) 폴크로르(193), 오체르크(330), 구르빠, 인또나찌야(330), 릴리씨즘(46)

(㊱) 국어 용어 : 환설적(194, 259), 인민구두창작(296), 인식교양적·의의(164, 282, 303), 물질적 표현(12, 7), 횡포성(360), 군사령도예술(91), 섬멸적 타격(90), 임진조국전쟁(263) 희생성 발휘(88)

(㊲) 어법 : ‘-로 되다.’ …문학 평론의 출발로 되었다.(119), 귀중한 유산으로 된다.(124) 효과적인 형식으로 되었다.(128) ‘복무하다’ …유지 공고화를 위하여 복무한 사상적 지주였기 때문이다.(279)

② <ㄱ 3> : 본서는 아래와 같이 시대 구분을 하였다.

9세기 이전의 문학

10 - 14세기의 문학

15 - 16세기 문학

17세기 문학

18 - 19세기 문학

19세기 말 - 1945년 문학

8.15 해방과 조선 문학

평화적 건설 시기의 문학

조국 해방 전쟁 시기의 문학

전후 시기 문학

광복 전의 시대 구분은 세기를 단위로 객관화하고 있으나, 광복후의 시대 구분은 각 시기마다 사회적 정치적으로 성격화한 명칭을 주고 있다. 그리고 분단된 북의 문학만을 대상으로 하여 편사하고 있다.

본서에서는 주로 19세기말 - 1945년의 기간을 중점적으로 살펴 보려고 한다.

* 계몽기 문학이 과거의 사실주의 전통을 계승하였으나 새로운 시대적 형식으로 혁신하지

못하고 과도기의 문학으로서 정론적 성격을 면치 못한 것으로 보았다. 1920년대 프로레타리아 문학에 의하여서 그 정론적 빠포스와 사회 개혁적 사상과 애국주의 사상이 계승되고 수준 높은 사실주의 문학이 되었다고 하였다. (p.100) 그리하여 이때부터 비판적 사실주의에서 벗어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의 싹이 움텄다고 하였다. 조명희, 한설야, 이기영, 최서해, 이상화, 송영 등을 그와같은 프로 문학의 창건자로 간주하고 있다. (p.101)

* 낭만주의적 표현 수법에 대하여

“사물의 본질을 선명하게 들어 내기 위하여 현실에는 없거나 아주 희귀한 것, 작가가 주관적으로 바라는 것을 대담한 환상, 과장, 예리한 대조 등으로 묘사하는 것을 말한다.” (p.117) 고 하고,나도향의 <버어리 삼룡이>에서 그 효과를 평가하고 있다.

* 본서의 작품 해석이 사회적 편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북의 문학사 일반과 다를 것이 없다. 일례로 김소월의 <초혼>에 대한 해석을 보면,

“김소월은 실음에 목 메여 조국의 이름을 부르나 다만 혼자 부를 뿐이었다. 그것은 그가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 노동 계급의 투쟁과 연결되지 못한 때문이다.” (p.111) 라고 시인의 고독을 노동 계급의 투쟁과 연결되지 않은 데서 왔다고 함으로써 문학을 순전히 계급의 투쟁 논리에 환원시켜 이해하는 사회적 목적론적 태도를 드러냈다.

* 신소설의 대표적 작가로서 이해조를 들고, 이인직은 전혀 이름조차 내놓지 않았다. 이해조의 문학이 자주독립의 애국적 사상과 반봉건적 민주주의 사상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평가하였다. (p.97)

* 김소월에 대하여 애국주의 사상과 인도주의 사상을 아름다운 서정시 형식으로 노래한 재능있는 시인으로 평가하고, 전래의 7.5조를 계승하여 구속 없는 변체 7.5조의 시형식을 창시하였다고 하였다. (pp.106f.110) 나도향의 소설에 대하여는 비판적 사실주의의 한계에 머물렀으나 애국주의적 인도주의적 사상과 예술적 독창성을 들어 인민의 귀중한 유산의 하나로 꼽았다. (p.115) 위의 두 문인은 “인민의 압제자와 착취자를 증오하고 그들의 추악한 내부 생활을 폭로한 비판 정신으로 말미암아 인민성을 깊이 구현하였다.” (p.103)고 하면서도 세계관의 제한성을 꼬집었다.

* 이광수에 관하여, “조선 인민을 일제의 식민지 노예로 만들려는 민족 개량주의와 색정주의가 결합된 이광수의 악독한 반동 문학” (p.103)

* 김동인 염상섭에 관하여, “인간의 추악한 동물적 본능만을 과장하여 묘사함으로써 인간 생활의 무의미성과 도덕적 타락을 선전한 김동인, 염상섭 등의 자연주의 문학” (id.)

* 백조파에 대하여, “시가에 있어서는 서구라파의 퇴폐적인 상징주의 조류를 끌어 들여 절망과 애수, 죽음과 눈물만을 노래한 <백조>파” (id.)

* 9인회에 대하여, “1933년에 리태준을 중심으로 한 반동 문학 그루빠 <9인회>가 가

프에 적대할 목적으로 출현하였으며”

* 해외문학과에 대하여, “1930 - 1931 년경에는 김광섭, 이하운, 리헌구, 정인섭 등 서구라파 문학을 연구하는 부르쥬아 인텔리들로 소위 <해외 문학과>가 형성되어 서구라파 부르쥬아 퇴폐 문학을 소개하는 한편, 기관지 <해외 문학> 기타를 통하여 코스모폴리찌즘과 예술 지상주의를 퍼뜨렸다. <해외 문학과>와 <9인회>는 손에 손을 잡고 가프문학을 비방하며 공격에 나섰다.” (p.105 ~ 106)

* 임화에 관하여, “림화를 비롯한 변절한들도 가프를 비방하면서 자연주의 퇴폐 문학에 몰두하였다. …… 리광수, 림화를 비롯한 많은 반동 작가들은 한결같이 일제 어용 문학 단체인 <조선문인보국회>의 선두에 서서 조선 청년들을 전장에 나갈 것을 파렴치하게 설교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Id.)

위와 같이 비판하였고, 통털어 “이 시기의 반동 작가들은 그 색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제에 매수된 주구로서의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였”(id.)다고 몰아서 비판하였다. 위의 비판에서는 문학적인 기여 따위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오로지 사회의식적인 면에서 비판하고 있다.

③ <스 4> - <스 8> : 시대 구분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스 4> : 원시문학예술 / 고대문학 / 1-7세기 전반기 문학 / 7세기 후반기-9세기 문학 / 10-12세기 전반기 문학 / 11-12세기 후반기 - 14세기 문학 / 15-16세기 문학 / 17세기 문학 / 18-19세기 중엽의 문학

<스 5> : ?

<스 6> : ?

<스 7> : 평화적 민주건설시기 문학(1945.8 - 1950.6) /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문학(1950.6 - 1953.7) / 전후 복구건설 및 사회주의 기초건설 시기 문학(1953.7 - 1958)

<스 8> : 1959년 - 1966년 문학 / 1966년 - 1975년 문학

위의 문학사의 시대 구분은 전체로서 일관성이 없다. <고대 중세편>은 ‘원시’와 ‘고대’로 구분한 뒤 다음시대는 19세기 중엽까지 객관화된 세기 단위의 구분을 하고 있다. 그 중간 시기의 시대 구분은 자료의 미비로 알 수 없고 광복 후의 북의 문학사의 시대 구분에 있어서는 ‘평화적 민주건설 시기’ 등 사회적 정치적 성격을 주는 명칭으로 시대를 구분하고, 동시에 () 안에 구체적인 연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똑같은 분단기의 북의 문학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후속 시대인 1959년 이후의 시대 구분은 ‘1959년 - 1966년’과 같은 객관화된 연기 표기로 바뀌어 있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스 4>는 고대 중세를 다루었는데 같은 시기를 다룬 <스 1>과 서술의 기본 입장은 거의 틀리지 않는다.

“인민의 투쟁과 창조의 역사를 잘 알아야만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을 소유할 수 있

으며 민족적 긍지와 혁명적 자존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p.1, 머리말)라고 한 수령의 교시를 받고, “우리 나라 문학발전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서술하는 동시에 매 역사적 시기의 문학운동과 문학현상들, 작품들에 대하여 과학적인 평가와 분석을 가하는데 중요한 관심을 돌리었다.” (p.1f.)고 했으며, 그 간에 이룩한 연구 성과와 경험을 토대로 하여 “구성체계와 서술방법, 문학운동과 문학작품들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새롭게 하려고 시도하였으며 새로운 자료들을 보충하였다.” (p.2)고 하면서 위의 모든 서술 전반에서 ‘주체의 방법론’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하였다.(id.)

그러나 위와같은 ‘새롭게 하려는 의도’에도 불구하고, <스 4,7,8>을 검토하여 얻은 결론은 종전의 문학사 - <스 1>보다 월등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바로 그 <새롭게 하려는 작위성> 때문에 가장 열악한 점에서 특색있는 문학사 기술로 후퇴해 버렸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점을 아래에 지적해 본다.

(7) 문학 해석에 있어서의 교조적 성격이 종전의 북의 문학사 기술보다 강화되고 있다. 문학 작품의 해석에 있어서 ‘위대한 수령 동지’의, 그 작품에 대한 의견이나 말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그것을 부연하는 방향에서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고대소설 <심청전>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본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심청전>을 현대적으로 각색한 연극을 보시고 이 소설의 작자는 당시 인민들의 암담한 처지를 눈먼 심봉사의 형상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하였으며 심청이 왕비가 되고 심봉사가 눈을 뜨게 한 것은 당시 인민들의 한결같은 희망을 보여주는 동시에 반드시 그러한 희망찬 사회가 오리라는 작가자신의 신념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죽었던 심청이를 룡궁을 거쳐 런꽃 속에서 다시 살아나오게 한 것은 당시 사회력사적 제한성에 기인된 것이라고 가르치시었다.” (스 4 : p.448)라고 미리 제시하고 작품을 ‘분석, 해석’ 하였는데, 수령의 ‘가르치심’에 따라 전개되어 나가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양반전>의 경우를 보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영화 <량반전>은 지내 비속화되어서 재미없습니다. 원래 이 작품은 그때 당시의 계급투쟁을 그린 것인데 비속화하다보니 아이들이 그저 희극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바와 같이 소설 <량반전>은 단순히 웃음이나 자아내기 위하여 꾸며진 희극이 아니라 ……’ (스 4 : p.533)

위에 소개한 예에서 보듯 이른바 수령의 교시는 문학의 원칙적인 문제의 차원을 벗어나 구체적 개개의 작품 차원에 까지 미치고 있다. 그리고 그의 교시는 언제 한 번 비판 받아본 적이 없음은 물론 조금만치의 회의도 허락되지 않는 만고불변의 진리처럼 받아들여지고 있고, 문학사 기술의 전과정에서 단 한 번도 필자에 의하여 사소한 수정조차 가해지는 일이 없는 절대적

인 교조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학사 기술의 결정적 한계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스 4> (554면)의 본문에서 간접 인용의 경우를 제외하고 직접 인용된, 꼬덕 활자로 인쇄된 수령의 교시 대목 - 어록을 통계잡아 보니 54개에 이르렀다. 시대가 내려가 분단기에 이르면 수령의 어록 인용은 더욱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무작위로 선택한 <스 7> 본문 150면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 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의 투어는 7회 나오고 있다. 총 34행 한 면에서 어록의 직접 인용 4행을 포함하고, 7회의 '수령'에 대한 언급은 이 문학사 기술의 절대적 교조주의를 웅변으로 말해 주는 사실로 인정된다. 이것은 하필 150면에 국한한 사실이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ㄴ) 원문 인용에 있어 아무런 단서도 없이 옛 글자를 완전히 현대의 철자로 옮겨 써서 원문을 알아 볼 수 없게 하였고(cf.p.139), 문학사 본문은 완전한 한글 전용으로 일관하였는데, 한글만으로는 어의를 가리기 어려운 경우라도 결코 한자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스 4.5.6.7.8> 전편을 통하여 한자는 한 자의 사용도 볼 수 없다. 심지어 한시를 논의하는 경우에도 순전히 한글 번역시만 제시하고 원시인 한시는 결코 한 번도 제시하지 않았다. 한시의 제목조차 번역한 시제만을 제시함으로써 원전을 알아 보기 어렵게 하였다.(cf.p.159)

(ㄷ) 작품에 대한 목적론적 해석이 가져온 오류를 볼 수 있다. <공후인>에서의 노인 부부의 형상을 고대 노예사회의 불합리한 현실에서 일어난 비극적 형상으로, 그리고 노래는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의 고통에 대한 창작자의 울분과 슬픔이 표현된 것으로 해석하였다.(cf.27) 백수광부의 부부를 노예사회와 연결 지을 아무런 근거도 원전에서 찾을 수 없다. 온달 설화에 대하여, "온달의 형상을 통하여 봉건사회에서 '바보'로 천대받고 멸시를 당하는 가난한 사람들이야말로 슬기롭고 용감하며 원수를 미워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p.42)고 해석하였는데, 이른바 인민적 애국주의를 고취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설화 주제에서 이탈한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풍요>에 대하여, "이 노래에서는 불합리하고 모순에 찬 봉건사회에서 고역과 빈궁 속에 시달리는 가난한 인민들의 신음소리가 울려나오고 있으며 불교의 허황성과 중놈들의 기만성이 폭로되고 있다." (p.62)고 하였다. 이토시주하는 선남선녀들의 귀의심을 전혀 개의치 않은 투쟁 논리 일변도의 해석이다. <춘향전>에 대하여, 수령의 교시 …… " <춘향전>을 근로자들에게 보이는 것은 그 당시 봉건사회가 얼마나 썩어 빠졌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결코 춘향이 남편을 위하여 일편단심 정조를 지키기 위한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 (p.443)고 한 것을 받아 들여 봉건사회의 부패한 현실에 대한 비판을 강조하고, 춘향이 절개를 지켜 행복을 성취하는 것으로 마친 것은 행복한 생활에 대한 당시 인민들의 '량만적 지향'을 보인 것이라고 하였다.(p.444) 그러나 수령의 또 다른 교시…" 이 작품에서 량반계급의 신분적 차별을 반대하는 사람 자체가 다름아닌 량반의 아들이며 이 작품에 그려진 인간들의 정신 세계는 우리 시대 청년들의 정신세계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임

니다. …… 이런 옛날 작품들에 그려진 봉건귀족들과 자본가들의 …… 생활모습들이 봉건사상과 자본주의사상, 부르췌아 생활양식에 물들게 하는 해독적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p.446)를 따라 기술자는 “오늘의 청소년들과 근로자들의 공산주의 교양에 해로운 작용을 할 수 있다.” (id.)고 하였으나, 종당에는 봉건사회의 현실을 생동하게 반영한 것으로 이 시기 소설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고 고전소설의 대표적 작품으로 인정하는 논의를 하였다(p.447). 그러나, 위의 논의들은 춘향전에 관한 반주제적인 논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비록 진보적인 문학과 작품을 거론하면서도 어느 의미의 한계를 반드시 언급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일례로 서거정의 진보적 사상 미학적 견해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봉건량반인 서거정이 넘두에 둔 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봉건국가였고 그가 백성을 걱정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근로 인민의 이익을 표현한 것은 아니” (p.242)라는 한계를 긋는 일을 잊지 않고 있다. 본서 < 4 >의 문학적 시대는 대부분 봉건사회에 속해 있으므로, 문학의 ‘사상에술성’이라는 관점에서 봉건제도의 여러 측면—가족, 사회, 정치, 관리, 양반, 귀족, 중, 신분 차별 … 등—의 불합리성, 부패 타락상, 반 인민성, 착취, 억압 등을 폭로, 자탄하거나 인민생활의 비참상을 그려내거나, 외래 침략자에 대한 반대 투쟁, 애국주의 등을 다룬 문학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새로운 견해도 더러 보인다.

(ㄱ) ‘향가’에 대하여, “옛 문헌을 보면 향가란 말은 주로 8세기 이후에 많이 쓰이였으며 그 이전에는 사뇌가란 말이 있었다. ‘사뇌’란 ‘사로’, ‘사라’, ‘서나’, ‘신라’ 등과 통하는 말로서 ‘사로’ (‘서나벌’) 인민들 속에서 불리우던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p.61)고 하였다.

(ㄴ) ‘수이전’을 장르의 명칭으로 쓰고 있다. 즉 10—12세기 전반기에 와서 ‘수이전체 작품’이 양적으로 많이 창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술적 면에서도 새로운 발전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p.116)

(ㄷ) 우리 중세소설이 앞선 시기의 산문문학의 창작 성과와 경험을 섭취하여 발생 발전하였다고 하고, “다른 나라 소설작품의 모방에 의하여 발생한 듯이 사태를 외곡하는 반동적 견해에 대한 타격으로 된다.” (p.246)고 하여 소설발생의 영향론을 비판하고 있다.

(ㄹ) 12세기 후반기—14세기에 나타난 구전가요에 대하여 ‘고려국어가요’라고 이름지어 부르고 있다.

< 7 > : 광복후 분단시대 전기에 해당하는 시기의 북의 문학을 다루고 있다. 이 시기는 이른바 ‘조국해방전쟁’과 전후의 복구 건설 및 ‘사회주의 기초 건설’의 기간을 포함하고 있다. 해방후의 북의 문학은 “칠두칠미 조선혁명과 조선인을 위하여 복무하는 혁명적이며 인민적

인 문학예술” (p.16)로 성격화하는 방향에서 기술하고 있다. 무엇보다 먼저 수령에 대한 충성과 흥미를 나타낸 문학을 평가하고, 인민의 정권으로서의 ‘공화국’의 모든 사실을 예찬하는 문학들이 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위의 두 가지 원칙에 회의를 제기하거나 소극적인 작품은 결코 문학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런 문학 활동은 용납되지도 않는다. 그런 가운데서도 비판하고 폭로하고 매도할 자유가 주어진 대상은 ‘남조선 사회의 현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제국주의’도 그 대상이 되고 있다. 당대적인 문제 외에 지난날의 수령의 항일투쟁, 암담했던 일제시대의 수탈과 지주의 착취 등 어두운 면을 다룬 작품들과 ‘인민의 나라’의 민주 개혁 및 노동 현장 그리고 인민들의 행복과 보람, 감격과 기쁨을 형상화하고 노래한 작품들에 많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문학사 기술자는 예술에 대하여 내린 수령의 교시—인민에게 투쟁의 무기로서 복무하여야 한다.(p.153)—에 따라 혁명 승리의 필연성 (p.130), ‘남조선’에서의 무장투쟁과 지하투쟁 (p.131), 반미 구국투쟁 (p.132), ‘남조선’ 인민들의 북에 대한 동경 (p.133), 비타협적 투쟁 (p.139) … 등의 형상화에 관심을 가지고 서술하고 있다.

수령과 ‘공화국’에 관한 작품에 대한 문학사 서술은 문학적 분석과는 거리가 먼 주정적인 감상문이 되고 있다. 시 〈목숨바쳐 따라가오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시에서는 아버지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은 자나깨나 우리 인민들 가슴속 깊이 가 가장 소중히 간직되어 있으며 위대한 수령님은 농촌과 어촌, 광산과 탄광에서 언제나 인민들을 격려해 주시고 따뜻한 손길로 이끌어 주시는 자애로운 아버지이심을 감동적으로 노래하면서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아버지 수령님을 따라 나아갈 충성의 결의를 심오하게 일반화 하였다.” (p.35)

본서에서 사용된 특이한 용어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발가놓다 (132), 무자비하게 죽쳐버리다 (132), 폭로단죄하다 (139), 타승하다 (140), 불패의 위력 (52, 140, 206), 된매를 안기다 (68), 늑잡히다 (69).

〈 8 〉 : 총 2 편으로 구성된 가운데 제 1 편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유일적 지배가 확립되고, 착취와 압박이 없는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 제도가 세워졌다” (p.1)고 하는 1958년 8월 이후에도 적대계급의 준동, 낡은 사상의 부식작용이 계속되어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혁명을 계속해야 한다고 천리마운동을 벌리고, 사회주의 기초 건설을 위한 5개년계획,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 점령을 위한 7개년계획 등이 실시된 기간의 문학사를 기술하였다.

여기서는 수령의 ‘형상창조’에 바쳐진 작품, 항일 주제의 작품, ‘조국해방전쟁’ 시기의 인민과 인민군대의 ‘영웅적 투쟁’을 다룬 작품, 천리마 현실과 사회주의 건설을 다룬 작품, 계급교양 주제의 작품, 남녘 인민의 투쟁을 반영한 작품 등을 다루었다.

제 2 편은 60년대 하반기 사회주의 건설이 심화 발전되고 계급투쟁이 날카로워짐에 따라 미제의 침략, 책동, 수정주의적 사상조류의 침습, 당내 반당 반혁명종파분자의 책동 등을 폭로

분쇄하고 유일사상체계를 강화하던 시기로 이를 위해 수령의 형상창조, 수령의 가정의 형상창조, 혁명 전통의 주제화, 수령에게 충직한 인민군 용사와 인민의 형상화, 3대 혁명의 현실, 남조선 혁명과 통일을 위한 투쟁 등을 문학화한 것을 다루었다.

본서에서 볼 수 있는 두드러진 사실은 문학 예술에 대한 지침이 그때그때 수령으로부터 제시되고 이에 따른 문학활동만이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우리 사회주의사회 근로자들의 생활을 반영한 예술적 갈등은 극단적으로 조정되거나 결렬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서는 안되며 부정이 극복되고 동지적 단결이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써 해결되도록 설정되어야 합니다.” <사회주의문학예술론, 299페이지> (p.11)

그리하여 북의 현실을 다루는 작가들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이나 내립은 설정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런 것을 다루고 싶으면 ‘남조선’의 현실로 설정하여 다룰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바람직한 일로 인정 받았다.

과거에도 수령을 예찬하고 미화하고 영웅화하는 예술 문학활동이 있었으나, 이 시기에 오면 이른바 ‘형상 창조’란 명목으로 조직적으로 집중적으로 수령을 주제로 한 문학화 운동이 그 어느 때 없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나갔다. 수령에 대한 형상 창조에 관하여, 기술한 것을 보면,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창조에 바쳐진 혁명적 작품들은 사람들을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교양하며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배우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p.240)고 그 의의를 붙이고 있다.

그리하여 수령의 혁명 역사를 시기별로 형상화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70년대 초에 4.15 문학창작단이 조직되어 수령의 혁명 역사를 시기별로 나누어 예술적으로 재현하는 ‘혁명적 작품 창작 사업’을 ‘진공적’으로 추진하여 ‘눈부신 창작성과’를 이루었다. (p.241) 4.15 문학창작단은 불과 4~5년 동안에 <<배움의 천리길>>(1971년)을 비롯한 3편의 장편소설과 총서 <<불멸의 력사>> 중에서 장편소설들인 <<1932년>>(1972년), <<혁명의 려명>>(1973년) 등 ‘기념비적 대작’들을 무더기로 창작해 냈다. <<배움의 천리길>>에서 창덕학교 시절의 수령의 어린 날을 형상 창작한 대목을 소개한 글을 아래에 인용한다.

“원수님께서서는 우락부락 싸우기만 좋아하고 공부하기 싫어하던 호철이를 공부에 취미를 붙이게 하시고 대바르고 의협심이 강한 훌륭한 학생으로, 나중에는 가난한 농촌아이들을 위하여 일생을 바치는 교원이 되겠다는 뜻을 가지도록 이끌어 주시었으며 부모들을 따라 맹목적으로 레배당에 다니던 경만이를 옳은 길로 돌려 세우시기 위하여 일요일에 만경대 뒤산에 가시여 군사놀이를 조직하시고 그에게 종교란 권력있는 놈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속여 소나 말처럼 부러먹기 위해서 만들어 낸 것임을 깨우쳐 주시었다.” (p.268)

위와 같은 ‘형상 창작’은 수령만의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의 가정에까지 활발하게 전개되어 나갔다. 이와같은 형상 창작은 소설, 시, 극 등에서 즐기치게 이루어져 나갔음을 본서는 소

상하게 기술하고 있다.

④ <소결>

이상에서 북의 문학사 3종을 소략하게나마 살펴 보았다. 비록 권수도 체제도 각각인 3종이기는 하나, 문학 이해의 시각과 역사 편술의 기본 태도에 있어서는 서로 구별될 것이 하나도 없다. 문학의 사실을 해석하고 서술한 논지는 3서가 거의 일치한다.

편자를 밝히지 않은 <스3>을 논외로 하고, 나머지 2종은 개인의 논제가 아닌 ‘집체집필’로 된 문학사이다. <스3>도 집필자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역시 집체집필이 아닌가 한다. 집체집필임에도 불구하고 논지 전개의 일관성이 있는 것은 교조주의적 사관의 결과로 보인다. 비단 문학의 역사만에 국한된 일은 아니겠으나 북의 사관은 역사 발전의 기반을 대립관계로 파악하고, 여기서 빚어지는 갈등과 모순은 투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기본태도를 가지고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문학사도 그 예외가 아니다. 북의 문학사는 시대마다 그 나름의 대립관계에서의 갈등과 모순을 문제삼아, 투쟁을 통한 해결과정을 문학 현실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문학은 단순한 사실반영이나 설명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지 않는다. 그 해결 방식인 투쟁에서의 무기 구실을 해야 한다는 강한 의식이 문학사 기술에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문학은 시대마다 대립관계와 관련하여 이에 상응한 투쟁을 위한 교양적 의의를 제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문학사 기술을 지배하고 있다.

봉건시대에는 봉건체제나름의, 일제시대에는 일제 식민체제 나름의, 광복후 분단기에는 남쪽은 남의 자유 민주주의체제나름의, 북은 북의 사회주의체제 나름의 대립관계를 설정하고, 그 사이에서 빚어지는 갈등과 투쟁을 다룬다는 식의 역사기술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모든 시대와 모든 체제에 어김없이 ‘인민’의 적대적 대립계층으로서 지배적 상층—군왕, 봉건관료, 지주, 자본가, 집권자...등을 대치하여, 이들의 ‘부패, 타락, 비인간성, 반인민성, 착취, 약탈, 부도덕성’ 등 온갖 나쁜 것을 폭로하여 ‘인민들’로 하여금 이들을 증오하고 적대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떨쳐 일어나 이들에게 ‘타격’을 주고, 이들과 견결히 투쟁하게 하도록 선동적인 문학이 될 때 인민성이 높은 문학으로 평가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의 문학에 관한 한 인민에 대한 대립관계를 설정함에 있어 예외적으로 상층 지배층이 배제되고 있다. 북에서는 일체의 대립관계가 해소되었다고 설득하면서 사회의 모순을 폭로하고 계급간의 대립갈등 대신 지배상층을 최상급의 찬사로 예찬하고 죽기까지 충성하도록 교양을 주면서 이로써 처리되지 않는 인민의 폭발 충동을 휴전선 너머 남녘의 ‘지배계층’과 ‘미제국주의’에 대한 적개심으로 전이하여 심리적 보상이 되도록 문학 형상화하는 일이 권해지고 있다. 대립관계가 해소되었다는 북에서도 가다가다 자기 체제 안의 불만 세력을 ‘반동’이니 ‘반당분자’니 ‘부르조아잔당’이니 하는 명목 아래 극복 대상으로 내세우는데 이들은 대개가 지난 날의 동지였던 특정

한 인물들이며, 문학에서도 입화, 이태준같은 이가 이에 속한다. 아무리 지난날에 사회주의 문학을 하였더라도 이들의 문학은 반혁명의 문학으로 문학사에서 부정되고 말곤 했다.

위와 같은 문학관과 역사관은 문학사 기술에서 특색있는 문체와 수사법을 가져 왔다. 즉,

ㄱ) 문체가 전반적으로 강건체로서, 적대세력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하기에 알맞도록 도전적이고 전투적인 용어가 구사되고 있다.

ㄴ) 반복법이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다. 수령에 대한 수식적 호칭을 비롯하여 이념 강조를 위한 동어반복이 빈도높게 나타나고 있다.

ㄷ) 수령을 비롯한 북의 상층에 관한 서술에서는 과도한 미화법이 구사되고, 적대 세력에 대한 서술에서는 극도의 추화법이 적용되고 있다.

ㄹ) 사실주의를 제창하면서도 정작 서술의 실제에서는 매우 주정적인 표현을 취하고 있다. 영탄법도 곧잘 쓰이고 있다.

분단기 북의 문학에 관한 역사는 이른바 ‘계급사관’의 예외지역이 되고 있다. 계급간의 대립 갈등 대신 수령에 대한 절대적 충성만이 강조되고 있고, 자체 사회 안의 결정적 모순과 타락을 폭로하는 대신 그 사회를 예찬하지 않으면 안된다. 인민성을 내걸면서도 서술의 전반에서 민중이나 인민보다 월등 높은 자리에 수령을 떠받들으로써 사회주의가 수용할 수 없는 영웅사관을 재현하고 있다. 작품이나 작가에 대한 평가는 관료적 권위주의에 입각하여 정제되고 일양화되고 있다. 문화적 당위성보다 사회적 당위성이 절대화됨으로 말미암아 ‘문학 상실’의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 북의 문학사의 현실이다.

2) 남의 문학사

남에서는 비교적 문학사 서술의 자유로운 시각이 허락되어 있는 듯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제약이 있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물론 분단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는 논의도 있을 수 있으나, 불구적인 문학사밖에 쓸 수 없었다는 데 대하여 깊은 통찰이 요망된다. 나름의 제약요인을 들면, 사회이념적 접근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탈이념의 문학사밖에 쓸 수 없게 함으로써 이른바 백과전서적 자료 연대기같은 문학사를 내놓게 하였다. 역사 현상을 일관성 있게 통찰할 수 있는 원리의 개발에 등한하거나 그 노력이 충분하지 못하였던 듯하다. 따라서 해석상의 자의성이 없지 않았다.

Ⅲ. 분단극복을 위한 문학사 기술의 당위

우리에게 있어 국토 분단 이상으로 정신 문화의 분단 현상은 심각하다. 분단 40년을 보내는 이 시점에서 분단 극복 노력의 일환으로서 정신 문화의 분단 현상을 극복할 데 대한 당위

성은 절실하다. 통일 지향의 문학사 서술의 당위성도 이 문맥 안에서 제기되는 것이다.

위에서 살폈듯이 우리의 분단 현상은 상호 폐쇄적 관계를 심화시킴으로써 가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분단 극복의 노력은 우선 개방적 자세로의 지향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다. 문학사 서술에서부터 금기 설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 경직성을 유연성으로, 일양성을 다양성으로 바꾸어 가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문학사 기술상의 통일 노력으로서 아래와 같은 일들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ㄱ) 문학을 보는 시각의 대극화를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시각 정립을 위해 서로간의 기탄 없는 대화의 기회가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ㄴ) 자료와 정보가 서로 개방되어야 한다. 완벽한 문학사를 쓰기 위해서 서로 연구 자료와 학술 정보를 주고 받음이 마땅하다.

ㄷ) 분단기의 문학현상도 서로 다 다루어야 할 것이다. 서로 반쪽만의 일방만을 다루어서는 그 불구성을 면할 수 없다. 상대방의 문학에 대한 연구 평가가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ㄹ) 문학사의 연대 구분과 명명에서 탈 이념적 객관화가 요망된다. 그런 의미에서는 ‘一세기’식의 명명이 무난할듯하다.

ㅁ) 특정 이념의 승리를 증명하려는 문학사 서술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문학외적인 이념적 기준에 의한 문학 사실의 수용과 배제는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ㅂ) 논리의 정제와 일관성은 요구되나, 경직화된 논리의 편향성은 극복되어야 하고, 기술의 과정에서 문학의 다양성을 수렴하는 자세가 요망된다. 문학사는 우리 문학 현상의 다양한 화폭을 제공해 주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양성을 수렴할 수 있는 포용성과 탄력성이 요망된다.

ㅅ) 문학에 대한 유물변증법의 고정관념인 상부구조라는 의식에서 탈피하여야 할 것이다.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규정한다는 도그마는 문학에 관한한 절대적이 못될 뿐더러 우리의 경우는 문학의 중요한 가능성을 사상해 버리는 논거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는 예술도 법률류와 같이 생산양식이란 토대가 변하는 데 따라 그 효력을 잃어야 된다. 그러나, 고전적 예술이 여전히 예술적 감흥을 주고 있다.

ㅇ) 대학원에 북의 문학사에 대한 강좌를 설강하는 것도 생각해 볼만하다.